내 죽음 알리미를 위한 고정지출

(역대하 31:1~21)

2.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3.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4.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5.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6.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 죽음 알리미를 위한 고정지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죽음 알리미를 위한 고정지출'
어제 뉴스를 보니 독일 정부가 1990년에 통일이 된 이후 3년 연속 최대의 흑자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빚이 2,600만원이고 또한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있어본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뉴스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독일 사람들의 종교세입니다. 독일은 기독교인과 가톨릭을 합쳐서 90%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재정을 자체 내에서 충당하는 자유교회가 있고 이슬람도 2~3%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90%가 소득의 1/10을 종교세로 내는 것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싫다면 시청에 가서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믿지 않는다고 신고만 하면 종교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종교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설령 교회는 나가지 않더라도 종교세는 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개신교인과 가톨릭 교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소득의 1/10을 종교세로 고정지출 해야 하는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종교세를 낸다고 해서 다른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 종교세로 제3국의 가난한 나라와 교회들을 돕기도 하는데 담당하는 곳이 사회봉사국(Diakonishes Werk)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속에서 이 고정지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앙개혁을 주도하는 가운데 고정지출 확정에서 완결됩니다. 고정지출 항목을 삽입하면서 신앙개혁이 완결됩니다.

흔히 고정지출을 의식주비 수도세 전기세 통신비 교육비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삶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이외에 고정지출이 있다면 유니세프 등에 기금을 낸다든지 부모님께 매달 얼마씩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삶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정지출입니다.

이러한 모든 고정지출 중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떠받치는 고정지출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일조입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성경 상의 규정만으로 생각하여 드린다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단에서는 십일조를 투자형식으로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십일조를 투자하면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신다고 하는데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십일조의 본래 정신과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독일이 종교세를 걷는 것처럼 성경은 십일조를 고정지출로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속에 있는 고유한 의도와 목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십일조는 내 죽음을 알려주는 죽음 알리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비용입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신앙개혁의 마지막으로 자기 재산에서 얼마를 떼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면서 성전에서 번제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당부하며 백성들에게도 공포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기 위해 십일조를 내게 한 것입니다. 이 십일조는 모세 때에 정해진 것이지만 그 동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의 이십사 반차를 정비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번제와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오직 성전의 일만 하는 이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떼어주고,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성물과 십일조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일조는 3월부터 7월까지 내는 것으로서 쌓아두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월부터가 수확의 시작입니다. 오순절(칠칠절, 맥추절)로 시작하여 7월에 추수가 마감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부터 추수가 되는대로 계속해서 십일조를 쌓아 놓았습니다. 이 고정지출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1년 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세나 수도세를 내면 전기나 수도를 쓸 수 있고 식료품비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일조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고정지출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유월절, 안식일, 매달 초하루, 속죄일 등 절기 때마다 번제를 드렸고 상번제가 아침저녁으로 매일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번제는 어떤 절기의 어떤 제사보다도 먼저 행해지게 됩니다. 안식일의 번제라면 먼저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드려집니다. 유월절의 번제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 년 내내 해야 될 큰 임무입니다. 이것을 하도록 십일조를 내게 하였는데, 이 의미가 바로 내 죽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상번제가 드려진다.'라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죽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담겨집니다. 육체의 오감으로 감각되는 것들이 마음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소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해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과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체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지 본래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곧 죄악이 됩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만족을 땅에서 얻기 위해 소원하고 열망하며 때로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세상에는 본래 우리의 기쁨거리가 없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마다 그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어린양이 죽어서 상번제가 드려짐은 그러한 내가 죽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은 어린양을 상번제로 드림으로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는 죄악 된 내가 죽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죽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는 이 세상 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으로 기뻐하려는 것입니다. 행동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나의 모습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돈 좀 많이 벌어서 펑펑 쓰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곧 그러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지금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라면 지금 일어나는 죄악은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죽음 알리미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 알리미의 소리를 들

어야 합니다. 지금도 성전에서는 번제가 드려지고 있기에, 세상에 대해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나는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기쁨은 오직 하늘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 알리미의 소리를 듣지 않거나 이들의 활동이 정지된다면, 우리의 소원과 계획은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 계획 속에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 계획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되고 그러한 모습은 곧 사망의 모습입니다. 죽음 알리미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죽은 나의 모습을 밀고 나가고 죽은 나를 주무르는 것이고 죽은 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으로 도넛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알리미를 통해서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내가 죽은 것을 모른 채 하나님 계획 밖의 나의 죽음을 밀고 나갈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게 됩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과 근심걱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삶은 기뻐하는 것과 만족하는 것인데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소모하는 것일 뿐이고 죽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번제를 드리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죽음 알리미로서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십일조를 고정지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일조의 부활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개혁을 완결 짓는 종착역이 됩니다. 끊임없는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체질적 죄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날마다 상번제를 통한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의 활동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는 말씀처럼 내 삶에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장갑 삼아 사시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내 죽음 알리미가 될 수 있도록 십일조를 고정지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식료품비나 전기세나 수도세보다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사십 일을 금식기도 하신 후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장면을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십일조는 우리의 식료품비보다 더 우선 되어야 될 고정지출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죽음을 알려주는 죽음 알리미들의 삶이 보장되어서, 그들이 알려주는 죽음을 날마다 나의 죽음으로 인정할 때에 내 삶은 하나님이 사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삶이 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32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는 말씀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알리미의 소리를 들어 땅에 대해서 죽음을 인정하고 또한 기쁨은 오직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음 알리미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성전의 번제의 의미를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목사님의 마음이 통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만인제사장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왜 목사님들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인제사장은 내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주님께서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은 그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건이 아니면 선포되어 질 수 없고 십자가가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십자가 생활화는 중단되고 맙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님들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예수님이라는 길이 살아 있지 않고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나 제사장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살아있으려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을 전폐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내 인격 속에서 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하고 있어야 십자가를 사건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목사님들만이 십자가를 듣는 사람에게 지금의 사건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경제활동이나 삶의 활동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사역에 전념할 수 있고 온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내 죽음을 알리는 죽음 알리미를 위한 고정지출이 있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십자가 생활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고백의 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죽음 알리미를 위한 고정지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실제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사심의 현장이 되고 나의 마음은 하늘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는 복지의 삶이 실현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